

“정리해고 13년, 재판거래 7년, 정년 전에 공장으로 ...”

콜텍지회, 끝장 투쟁 돌입 ... “더 많은 돈 벌기 위한 정리해고 더는 안 된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콜텍 지회 조합원들이 정리해고 철회 13년 투쟁을 끝장내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지회는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 농성장을 서울 강서구 콜텍 본사 앞으로 옮겨 무기한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조 콜텍지회와 콜텍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월 8일 서울 광화문 농성장 앞에서 ‘정리해고 13년, 정년이 되기 전에’ 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회와 공동위는 “콜텍 사원증을 받고 당당하게 퇴직할 것이다. 우리의 싸움이 옳았다는 진실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함부로 사람을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라고 밝혔다.

지회는 끝장 투쟁을 시작하며 ▲콜텍 박영호 회장 사과와 해고노동자 복직 ▲콜텍 정리해고 재판거래, 사법살인 양승태 구속과 재심 진행 ▲민주당 정부 시절 만든 악법, 정리해고제 폐기 등을 촉구했다.

이승열 노조 부위원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오늘 기자회견은 2007년부터 시작한 콜텍 정리해고 투쟁에 중지부를 찍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알리는 자리다” 라고 설명했다. 이승열 부위원장은 “박영호 회장이 자행한 정리해고는 양승태 대법원의 청와대 재판거래로 결론이 났



다. 즉각 재심해야 한다” 라고 비판했다.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장을 찾은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은 콜텍지회 조합원들을 껴안으며 응원했다. 백기완 소장은 “정년을 앞둔 콜텍 노동자들이 노동자 투쟁과 인류 역사에 후퇴가 없다는 진리를 증명했다” 라며 “이제 문재인 정부가 나서 콜텍 정리해고 문제를 마무리하라” 라고 촉구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정수용 신부는 연대 발언을 통해 “한국 사회는 생산력 극대화 와 경제 효율성이 라는 가치를 위해 수많은 대량해고를 자행했다” 라고 비판했다. 정수용 신부는 “콜텍 해고자들의 복직과 명예회복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이인근 콜텍지회장은 “콜텍 노동자 정리해고는 양승태 사법부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재판거래를 위해 희생됐다” 라고 분노했다. 이인근 지회장은 “고통 분담을 핑계로 도입한 정리해고

제는 수많은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쫓고 자본의 이익을 위한 도구 됐다. 더는 노동자에게 고통 분담을 강요하지 말고 정리해고제를 폐지하라” 라고 촉구했다.

지회는 1월 8일 광화문 농성장을 출발해 인사동에서 거리공연을 연 뒤 서울 마포구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항의

행동을 벌인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콜벤’ 콘서트를 연다. 지회는 9일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에서 행진을 시작해 서울 강서구 등촌동 콜텍 본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다.

2007년 박영호 콜텍-콜텍 회장은 매년 1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냈지만,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충남 계룡시의 공장을 해외로 옮기고 모든 콜텍 노동자 67명을 해고했다. 2009년 서울고등법원은 ‘경영상 정리해고할 이유가 없다’ 라며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다. 2012년 양승태 대법원은 ‘미래를 대비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 라고 서울고법 판결을 뒤집었다.

지난해 5월 ‘사법행정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은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정권과 콜텍, 쌍용차, KTX 정리해고 관련 판결 등을 거래했다고 밝혔다.

파인텍지회, “무기한 고공 단식 돌입”

두 농성자 50kg도 안 되는 뼈만 남은 상태 ... 김세권, “파인텍 재가동해도 어떤 책임도 못 진다”

75m 굴뚝 농성 422일째인 박준호, 홍기탁 파인텍지회 조합원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과 차광호 지회장,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이 적극 만류했으나 두 조합원은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식사를 올리는 줄을 내려보내지 않고 있다.

두 조합원은 현재 몸무게가 50kg에 미치지 못하고, 가슴뼈가 그대로 드러나 그야말로 뼈만 남아 차마 눈으로 보기 힘든 상황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앞서 노조와 스타플렉스는 지난해 12월 27일 첫 교섭을 시작으로 모두 네 차례 교섭을 벌였다. 두 조합원이 굴뚝에 오른 지 410 일만이었다. 교섭에서 김세권 대표이사는 “불법 저지르고 굴뚝 올라가면 영웅 되는가”라는 막말을 했다. 자신은 아무 책임이 없다며 스타플렉스 직접고용을 끝까지 거부했다. 1월 3일 4차 교섭에서 이미 ‘유령회사’ 임이 드러난 파인텍을 재가동하고자 했다.

노조는 스타플렉스 “김세권 대표이사가 직접 책임지는 방식이라면 스타플렉스 직접



고용이 아니라도 논의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조는 “전제는 유령, 가짜회사인 파인텍 운영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김세권 스타플렉스 대표이사가 책임과 약속을 선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스타플렉스 직접고용’ 요구를 양보하며, 파인텍 재가동 조건으로 ▲김세권이 파인텍 대표이사를 맡고 ▲합의서에 대표이사 김세권 서명 ▲단서조항으로 파인텍 폐업 시 스타플렉스로 3승계 명시 등을 요구했다.

김세권 대표이사는 “파인텍을 재가동하더라도 자신은 경영, 고용에 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며 교섭을 파행을 몰았다.

노조와 스타플렉스(파인텍)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행동은 1월 7일 서울 목동 열병합발전소 굴뚝 농성장 앞에서 ‘홍기탁, 박준호 무기한 단식 선포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홍기탁, 박준호 조합원의 단식은 김세권에게 보내는 최후통첩이자, 우리에게 파인텍 노동자들을 보듬어 달라는 절규다”라고 말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두 조합원의 단식을 중단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 김세권 대표이사의 결단이다”라며 “무너지는 가슴으로 다시 교섭을 요구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호규 위원장은 1월 8일 의료진과 함께 직접 굴뚝 위로 올라가 두 조합원의 단식을 만류할 계획이다.

차광호 파인텍지회장은 박준호, 홍기탁 두 조합원이 단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다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차광호 지회장은 “김세권은 두 번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파인텍 노동자들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며 분노했다. 차 지회장은 두 동지의 단식만은 막아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임원 임기 3년, 부위원장 대대 선출 등 대대 안건 확정

7일, 126차 중앙위원회 열어 ... 미조직비정규사업실을 미조직전략사업실로 변경

금속노조가 1월 7일 126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노조 부위원장을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조합 임원 임기는 3년으로 늘리는 규약개정안을 1월 14일 여는 46차 임시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노조 중앙위원들은 ▲규약 54조 개정안 65조에 따라 할당된 인원을 포함하여 부위원장은 10인 이내 ▲규약 59조 2항 신설안

부위원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정하는 책임 영역별로 출마하여,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 대의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 인원 과반수의 득표에 의한다 ▲규약 59조 3항 신설안 감사는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 대의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 인원 과반수의 득표에 의한다는 안을 확정했다.

중앙위원들은 규약 ▲57조 2항 부위원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정하는 책임 영역의 사업을 담당한다는 개정안과 ▲57조 3항 부위원장의 책임 영역,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입후보 자격 설정 등은 중앙위원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는 신설안도 결정했다.